

“2017 UN기후변화협약 총회 여수 유치를”

영호남 10개 시·군 시민단체로 구성 ‘동서창조포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후속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활발한 사후활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권 영·호남 10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서창조포럼’(상임대표 류중구·조세훈)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여수박람회 정산에 부합하고 남해안 시대를 여는 올바른 사후 활용 계획 수립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도 “현(現) 정부방침은 애초 약속한 사후활용 방안과 다르고 지역민이 간접하게 바꿨던 사후활용으로도 이어질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동서창조포럼이 제시한 방안

- 동서통합지대 사업 연계 활용
- 동아시아해양기후센터 설립
- 유엔녹색기금 분원 설립
- 2017 유엔기후협약 총회 유치
- 해양과학 신산업 활성화 모색



스카이라이프



박람회장내 ‘빅오(BIG-O)쇼’ 무대, 남해안권 영·호남 10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서 창조포럼’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바른 사후 박람회장 활용계획 수립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실질적인 사후활용 촉구=최근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박람회장의 선(先) 활성화 및 장기인대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발표에 따라 사후활용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후속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용역 최종 결과에는 컨벤션과 청소년 체험시설, 박물관과 쿠키스 등 공공 시설 활성화와 주요 핵심(엔지니어링)시설 운영 등 선 활성화 후 단계별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사후활용 계획 변경(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부 시설과 부지의 임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동서창조포럼은 “세 차례에 걸친 박람회장 매각 실패로 수정된 10년 임대 후 매각 계획은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핑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정 재원을 생각한다면 여수박람회장을 어떻게든 팔아 치우려는 핑수를 부리지 말고 애초 약속대로 여수박람회 정산에 부합하는 올바른 활용방안을 찾아 투자자의 몇 배 가치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은 박근혜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해양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예산을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다면 추가 투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활용 추진위도 정부지원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여수박람회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남해안 발전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국 총회 유치 반드시 유치돼야 =여수정신과 남해안발전 위한 구체적

인 사후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동서포럼은 사후활용 대안에 대해 ▲미래 지구환경, 국제사회 변화 대처 등 세계 5대 해양강국 도약 위한 여수박람회장 활용 ▲동서통합지대 사업과 연계한 박람회장 활용 ▲해양과학을 통한 해양과학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장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제관 활용 동아시아해양기후센터 설립 ▲GCF(유엔녹색기금)여수분원 유치 및 대륙별 기후변화 환경 선도 도시 협의체 구성 ▲주재관의 전시관 활용 및 총무공 역사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 운영 ▲2017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논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 세계 200개국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당사국 총회는 사후활용 활성화의 가장 큰 대안으로 꼽혔다.

류중구 상임대표는 “세계박람회보다 더 큰 규모인 당사국 총회를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카타르에 양보, 사

후활용 활성화의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선(先)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류 상임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른 올림픽과 월드컵, 대전엑스포 등 수많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정부의 투자금 환수 사례는 전무하다”며 “대전엑스포 당시 17만평의 부지와 건물, 현금 700억원을 대전시에 무상양도했던 사실을 정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세훈 상임대표도 “전남 동부와 남해안 시민사회가 15년간 순수한 열정으로 일궈낸 동서창조포럼은 사후활용 실패를 겪고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5일 열린 예정인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부는 여수박람회가 세계와 약속한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의 완성을 요구하는 남해안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관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산단공 여수·광양지사,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지사장 문경진)가 ‘2015년도 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신규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미니 클러스터는 기업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정보·지식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산단공 여수·광양지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모집기한은 오는 4월 13일까지다.

50개 기업이 참여 예정인 신규 미니클러스터는 여수 중심의 석유화학 융합소재 미니클러스터와 광양 중심의 철강·금속소재 미니클러스터로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미니클러스터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과제발굴 포럼,

산업단지 간 교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 기업 애로사항 과제발굴을 통한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토털마케팅과 기획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경진 지사장은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니 클러스터 자격 기준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석유화학·철강·금속소재 관련 제조업 분야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수산청, 여객선사 대표 초청 안전운항 간담회 가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지난 2일 지역 11개 여객선사 최고경영자들을 초청, 여수동 청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각 선사 대표와 여객선 선장을 비롯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운항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 1일 새로이 투입된 해사안전감독관들의 여객선 특별점검을 통한 안전확보가 주로는 의됐다.

여객선과 화물선 등 선박·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가 선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

별 채용한 15년 경력 이상의 선박안전 분야 전문가들이다.

전국 주요항만에 투입된 20명의 해사감독관 중 여수에는 인천 제주와 같은 2명의 감독관이 배치됐다.

오윤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 선사와 안전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검토해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제4회 전국어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 여수를 찾은 유기준 해수부장관도 여수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박 안전점검 시연과 현황 청취, 해사감독관 격려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바스프 여수공장 18일 창립 150주년 기념 음악회

여수국가산단내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이 오는 18일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바스프 창립 1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1865년 독일 루트빅스하펜 지방에서 작은 공장으로 출발한 바스프는 현재 전 세계 11만3000여명의 임직원과 6개의 페어본트(Verbund), 353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바스프는 올해 창립 150주년을 맞이해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 워크숍 ‘잼 세션’(jamming session)을 비롯해 지역별 기념행사와 온라인 활동을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임직원과 가

족·지역민을 예술마루로 초청해 음악회를 갖는다.

지휘자 함신익과 심포니가 함께 하는 이번 음악회는 바스프가 국내에서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 여수에서 17일과 18일 3회에 걸쳐 열린다.

음악회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에 시작되며 바스프 임직원과 가족, 여수 시민들에게 무료 메세나 티켓으로 제공된다. 티켓은 지정 배부처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바스프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준높은 문화 예술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작은 나눔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초 월납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상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피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